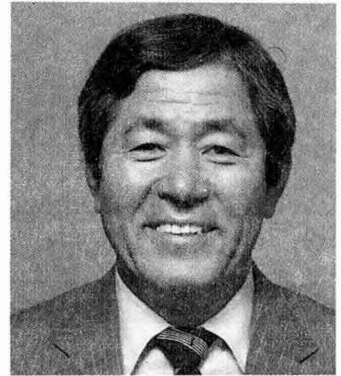


## 국제 防産協力

● 柳 俊 馨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常 勤 副 會 長



WINCON'89의 대회장인 Ted Lzen 박사, 본과위원장인 Everett D. Greinke,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귀빈 여러분. 본인은 오늘 이 자리에서 방산분야의 국가간 협력에 관해 발표할수 있게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이 자리에 참석할수 있도록 도와 주신 관계요원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회의의 전체 주제도 「Technology in the 21st Century」이지만 향후 방위산업의 국제협력에도 기술협력이 그 중요성을 더해 가리라고 믿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국가와 국가간의 인력전쟁이었으며 병력 숫자 자체가 곧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물질문명이 발달한 근대에 와서는 점차 동맹국간의 연합작전도 물질적 연합으로 이루어져 왔고, 실제로 군대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도 군수물자나 병기를 지원함으로써 전쟁의 승패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물자전에서 부터 점차 기술전의 양상을 띠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전쟁이 국지전이 되었건 전면전이 되었건 간에 정보

수집기술, 정보이용기술, 과학병기기술 및 소프트웨어등의 적절한 이용이 전쟁의 주도권을 가지고 승패를 가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가간의 방산 협력은 물자적인 협력도 중요하지만 이에 추가하여 기술적인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본인은 태평양지역 그중에서도 가장 중무장된 지역의 하나인 한반도의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

작금의 세계경제의 흐름을 보면 한국을 비롯한 태평양 연안국가들이 지난 20년간 고도 성장을 지속하여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경제적 활력과 심화되는 상호의존관계를 바탕으로 다음 세기는 태평양시대가 될것이라는 예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태평양지역의 국민총생산은 세계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교

역량의 41% 이상을 차지하여 EC보다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평양지역내 국가들의 80년대 중반 상호교역비율은 63%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소련은 아시아국가임을 천명한 1986년 블라디보스톡 선언에 이어 1988년 9월에는 亞·太平洋지역 평화와 안보를 위한 7개항을 제시하는등 이 지역에서 소련의 위치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미국은 2차대전 이후 美·蘇 양진영의 대립(bipolarization)과 함께 이 지역에서 누렸던 지배적인 위치가 주변국가의 세력증대로 다극화(multipolization)의 양상을 띠게 되면서 얼마간 침식되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일본, 북경, 블라디보스톡의 중간에 위치하여 미국, 소련, 중국, 일본의 세력이 겹쳐지는 곳으로서 이 지역 안정의 핵심이 되어 왔으며, 역사적으로 보아도 러·일전쟁, 중·일전쟁 및 한국전쟁 등은 한반도를 중심으로한 이러한 균형이 무너질때 발생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의 최첨단 포스트로서 국제 정치와 경제가 공존과 개방의 물결로 나아가고 있다해도 한반도의 안전보장은 냉엄한 현실로서, 오히려 이러한 데탕트의 시대가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더 위험한 시기일수가 있다는 것을 戰後史를 살펴보면 알수 있습니다.

일례로 '72년부터 '74년까지를 본격적인 데탕트기간으로 보지만 바로 이때에 월남은 적화되었습니다.

## 한국 방위산업의 현황

### • 배 경

이러한 한반도의 여건하에서 '60년대까지도 한국은 미국의 무상원조에 의존하였을뿐 이렇다할 방위산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70년대 들어와 북한의 지속적인 군비확장과 무력도발의 증가 그리고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로 한국에 대한 안보지원태세가 약화되는 기미를 보임에 따라 '70년대초 재래식 기본병기의 국산화와 방위산업의 조기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한국의 방위산업은 현재 K-2 소총, 지대지 유도탄, 다연장 로켓, 한국형 장갑차, 한국형 전차, 구축함 및 초계함, 그리고 F-5E/F 생산, 차세대 헬기와 최신에 전투기인 FX의 기술도입 생산을 할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였습니다.

한국의 방산업계도 그동안 타인자본에 의한 시설투자 과다로 재무구조가 기타 제조업에 비해 크게 저위험 상태에 있었으나 외환차익의 증가와 활발한 증자에 힘입어 많이 개선되었으며, 방산업계의 시설투자도 '85이후 경기의 호전으로 외국과의 기술제휴와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 및 새로운 설비대체등에 의해

1989년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美 캘리포니아 Costa Mesa의 Westin South Coast Plaza 호텔에서 「21세기의 기술」이란 주제로 「항공전자분야 冬季회의(WINCON '89 : Winter Convention on Aerospace and Electronic Systems)」가 열렸습니다. 이 글은 WINCON '89 회의의 제6분과(주제 : 국제 방산협력)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편집자 주)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 문제점

이처럼 한국의 방위산업이 국가적 자산으로서 발전하였으나, 미국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경쟁력이 있고 내실있는 자급자족의 방위산업으로서는 취약한 점이 많습니다.

첫째, 짧은 기간동안에 방위산업이 외양적이고 양적인 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내실있는 질적 성장에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일례로 '86년 현재 방산업체 전체의 조달가격 기준 평균 국산화율은 53.1%이며 이중 총포, 탄약, 일반물자를 제외하면 국산화율은 40%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즉 한국의 방위산업은 상당부분 해외의존 방위산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도약을 하여 선진국형의 방위산업으로 지향하기 위해서는 방위산업체들의 연구개발체제가 정착되어야 하나,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셋째, 한국군이 필요로 하는 국내 무기소요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위산업체들의 가동율이 저하됨에 따른 경영수지의 악화와 군의 수요를 충족한 다음에 기존 생산시설을 유지하는 문제가 있으며,

넷째, 앞으로 한국군이 소요로 하는 무기체계는 고도정밀무기인데 반하여 대부분의 방위산업이 총포, 탄약, 기동, 물자등의 재래식 무기생산을 위한 생산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군의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항공, 유도탄, 통신 및 전자등 고도정밀무기 생산을 위한 투자와 기반이 취약한 점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1990년대 한국의 산업 및 경제발전, 무기체계 소요, 군사과학기술의 수준, 그리고 우방국과의 협력등 새로운 여건들

을 고려하여 한국에 바람직한 방위산업 생산구조를 정립해야할 시점에 와 있으며, 향후 개선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선방향

먼저 향후 한국 방위산업의 목표는 현재까지 구축한 방위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국산화율을 높임과 동시에 한국 지형과 한국군 여건에 적합하고 일반산업에 기술 및 품질향상의 파급효과가 크며, 특히 국가산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수 있는 첨단 무기체계 생산능력을 갖추는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연구개발 투자예산이 '74~'81년간 국방예산의 年 2.4%, '82~'87년간 年 1.6%에 불과하여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는데 미흡하였으나, 점진적으로 늘려서 1996년에는 국방비의 5%까지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무기체계의 해외구매나 국내생산 및 획득(Make/Buy)정책과정을 과학화 내지는 체계화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며, 미국등 우방국가의 무기체계와 표준화 및 호환성을 높일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면서 향후 한국군 전력증강에 필요한 고도정밀무기의 해외구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지난 10여년동안의 한국군 전력증강 투자비의 약 41%가 무기체계의 해외구매에 쓰여졌으며, 이중 85%가 미국으로부터 무기구매에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M16 소총, 155미리 자주포, F-5E/F 전투기, 500MD 헬기, 88전차등의 공동생산사업을 한·미 양국업체들의 상호협력하에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전력증강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차기 한국군 주력전투기가 될 FX사업과 차세대 헬기 공동생산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다른 무기체계의 공동

생산 가능성도 적극 모색할 것입니다.

### 韓·美 방산협력의 문제점

1989년도 美 국방보고서에는 국제 군비협력을 통해서 연합전략의 목표에 기여하고, 동맹국간 최선의 기술을 공유함에 따라 연구개발 노력의 중복을 없애며, 동맹국 부대간의 공통성과 상호 작전능력을 높여 협동작전을 가능하게 하고, 동맹국에 대해서 전력의 극대화 와 비용분담의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장점을 얻을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대무기는 복잡, 고도화됨에 따라 막대한 연구개발 및 생산비용이 소요되지만, 실제 美 국방성의 FY1989 예산은 당초 요구액보다 3백25억불이 줄어들어 미국의 입장에서 국가간의 공동부담이 더욱 요구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무기시장은 일부 방산선진국에 의한 공급으로 방산협력의 선택폭도 좁았으나 오늘날은 공급원과 방산협력의 선택폭도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1948년 이래 미군 장비와 교리로 무장하여 왔으며, '86년 FMS 차관까지 졸업하여 독립적인 입장이 되었으나 여전히 조직, 운영 및 전술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시스템을 많이 모방하고 있어, 무기체제도 미국과 유사합니다.

이러한 영향은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에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방위산업이 현재와 같은 궤도에 오르게 된 이면에는 한·미간의 전통적인 우의를 바탕으로 한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이 밑거름이 되었으며, 한국 방위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애로사항도 미국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해소가 힘든 형편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한국이 문제로 생각

하고 있는 사항중 몇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첫째는 한국의 방산육성 초기에 적극적으로 기술지원을 비롯하여 협력을 아끼지 않았던 미국이 최근 기술의 이전을 회피할뿐 아니라 한국의 방위산업 육성 초기에 도입된 방산 TDP가 대부분 미국 정부 소유라고 하여 개발된지가 장기간 지난 품목에 대해서까지 현재 매 수출시마다 미국에게 제3국 수출동의(소위 3CS)를 신청하여 승인여부를 받아내야 하는 소위 「제3국 수출동의제도」를 통한 통제로 한국의 제3국 수출을 위한 입찰참가의 기회가 95%까지 상실되고 있습니다.

또 불판매보증서의 요구 및 로열티 부과등도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3국 수출은 연간 1억불정도에 불과하나 한·미간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둘째는 한·미간의 군사교역관계가 10대 1 이상의 심한 불균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은 나토국가 또는 이스라엘, 이집트 처럼 미국과 상호 호혜적 국방조달협정(Reciprocal Procurement MoU)체결을 희망하고 있으나, 미 정부관리들은 양국간 전반적인 무역 불균형, 구매제도에서의 보호조항과 절충교역(off-set)문제, 지적소유권 보호 및 제3국 무기판매문제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본인은 이러한 사실의 이면에는 좁게는 방산분야, 넓게는 한국 경제에 대한 양국간의 인식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인들은 한국 경제를 「유리컵에 물이 반쯤 차있는 경제」로 보는데 반하여 한국인들은 「유리컵에 물이 반쯤 비어 있는 경제」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인들의 눈에는 “한국 경제는 연간 10% 이상의 경제성장과 1백억달러 가까운 對美무역흑자를 나타내면서 자동차, 컴퓨터 칩, 고도화된 전자제품등을 미국에 수출하는 고도산업국가로서 경제발전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인데 반해, 한국인들은 “한국은 아직도 엄청난 외채와 미국의 7분의 1밖에 안되는 1인당 GNP에 총 GNP의 6%를 국방비에 쓰고 있는 개발도상국이며, 대미무역 흑자도 최근 2~3년간의 일로서 원화절상, 임금 상승 등으로 언제 또 무역적자로 돌아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경제는 허약체질을 아직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미국의 인식도 1987년부터 새로운 차원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971년부터 전력증강 투자재원으로 활용되었던 FMS차관 수혜 대상국에서 한국이 졸업을 하게 되고, 한국의 경제적 발전과 과학기술의 기반 확충으로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는 미국의 안보지원대상국에서 제외하여 선진국과 같은 경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개선방향

현 시점에서 무기수출시장의 제한성과 절충교역으로 인한 기술이전, 무기체계의 고가화 추세는 미국 방산업체로 하여금 국제간의 생산협력을 강요할수 밖에 없으며, 또한 무기체계의 공동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위험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미국은 NATO 국가등의 선진 우방국과 추진중인 공동연구 개발 및 생산에 있어 협력을 통한 비용부담을 한국과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발맞추어 한국은 '88년 제 20 차 한·미 연례안보회의(SCM)에서 한·미 연합방위전력증강(CDIP)을 위해 앞으로 3년간 ('89~'91) 매년 평균 4천만불 규모의 신규투자에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양국장관이 서명한 한·미 방산기술협력협정(DTIC MoU : Defense Technological/Industrial Cooperation MoU)은 아직까지 내용이나 실행상에서 개념적이고 포괄적인 것이기는 하나 미국이 한국과의 방산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첫걸음이라 판단됩니다.

본인은 선진 개발도상국인 한국과의 협력은 미국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세계 무기교역량중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방위산업체간의 협력방안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국업체가 한국의 생산비와 기능을 십분 활용하여 미국의 완제품에 대한 조립생산과 부품을 한국에서 조달하는 방법입니다.

둘째는 합작투자에 의한 공동생산 및 판매로서, 미국업체는 기술제공과 해외판매를 담당하고 한국업체는 주로 생산을 담당하며, 나아가서는 일반 민수품의 경우처럼 주문자 상표에 의한 생산방식(OEM)으로 까지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한국의 방산업체는 상당한 민수생산능력을 갖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이를 육성하고 있으므로, 이를 미국업체가 활용하여 민수품의 생산에 대해서도 한국 방산업체를 활용하는 방안등을 들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기체계의 서브시스템이나 부품등 작은 사업에서 부터 시작하여 협력을 하도록 하고, 상호 호혜적인 국방조달과 자유

로운 기술이전, 그리고 지적소유권 보호가 완벽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각국 정부와 업체들간에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러한 협력을 추진할때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의 무역관행이나 경제정책에 대해 새로운 관계설정에 알맞는 자세와 태도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다음과 같은 우정어린 충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은 1957년 미국 육군 보병학교 유학시절에 General Electric사의 아이론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요 몇년전에 외부코드를 교환하였을뿐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제조업은 미국의 산업을 주도하며 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최근에는 일반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이 급속한 발전을 한 반면 제조업의 발전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경향이 GNP상에서 수치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수 있으나, 국가의 장기성장과 경쟁력확보라는 면에서 제조업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케팅면에서도 일본과 미국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납니다. 일본은 물건을 사용할 국가를 염두에 두고, 동양인이면 동양인의 기호에 맞추어 제조를 하고 상품설명서도 번역을 하지만, 미국인은 자기 나라 본위로 제작을 하고 판매를 합니다. 그러나 고객은 자기에게 편하고 애프터서비스가 좋은 쪽을 선택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결론

그러면 몇가지 결론을 말씀드리고 본인의

발표를 마칠까 생각합니다. 현재 아시아의 신흥공업국(NICS)으로 통하는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공통점은 유교문화권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유교문화는 결합도 있지만 이들과 국가의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유교문화의 공통된 국민성은 근면하다는 것과 교육열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난해 고도의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올림픽을 수행하였고 민주화를 달성하였으며, 국제수지 흑자로 외채를 감소시켜 나가면서 노동조건이 크게 개선되는등 한국 경제는 일대 도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시점에서 우수한 인력과 중간기술능력을 지닌 한국과의 협력은 태평양지역에서의 영향력과 실리 확보에 다른 어느 나라의 협력보다 유리할 것입니다.

한편 한국의 입장에서 완전한 독자개발을 통한 무기체계 획득은 개발비용과 사후 투자 관리문제등의 경제성, 그리고 개발에 따른 실패 위험등을 고려할때 선진 우방국과의 공동연구개발 및 생산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방산협력을 통한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은 자유진영의 세계적인 전력차원에서 활용될수 있는 방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으며, 유사시 자유세계를 위한 동원기지외 병참기지로 활용할수 있을뿐 아니라 한국군의 전력증강사업에 외국업체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한국의 방위산업은 여러분의 지원과 협력을 절대로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끝까지 저의 발표를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滿腔의 謝意를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